

실속 재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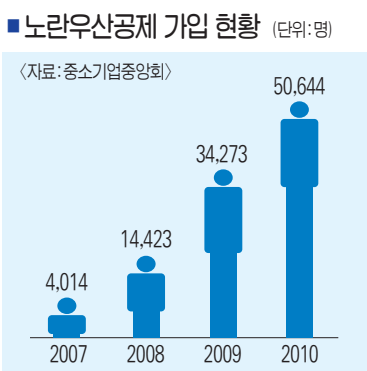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 '노란우산공제'

복리 혜택에 연 300만원 소득공제

#1. 운송업을 하는 L사장은 2008년 1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매월 50만원씩 부금을 납부하다가 지난해 말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막대한 가족들은 L사장이 납부한 금액의 150배인 7500만원과 공제금 560만원을 지급받아 생계자금으로 활용했다.

노란우산공제 절세 효과
과세표준 세율 절세가능액(예시)
1200만원 이하 6.6% 198,000원
1200만~4600만원 16.5% 495,000원
4601만~8800만원 26.4% 792,000원
8800만원 초과 36.3% 1,089,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연간 1200만~4600만원 이하인 경우 49만5000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79만2000원, 8800만원 초과는 108만9000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인과 소상공인만이 가입할 수 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소매 서비스업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혜택이 풍성한 만큼 노란우산공제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중기중앙회 운영...폐업·부도때 목돈 지급
보험금 최고 150배...광주은행서도 취급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가 경기침체와 저금리시대를 맞아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목돈 마련 제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07년 9월 첫선을 보인 노란우산공제는 출범 3년도 안돼 가입자 수가 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5만644명, 광주·전남 31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에 의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금·고용보험 등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소규모 소상공인의 경우 부도 등 갑작스러운 폐업시 국민연금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안정대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없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액(5만~70만원)을 납입하다 폐업·고령·질병·부상 등으로 퇴임할 경우 생계유지 및 사업 재기를 위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목돈으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사망할 경우에도 공제금이 지급된다.

부가지원도 다양하다.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발생 시 월 납입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성된 기금은 연금 보험상품처럼 복리이자를 적용하고, 별도의 운영사업비는 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운영사업비를 공제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상품과 비교할 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1% 상당의 연복리이자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세(稅)테크 상품으로도 탁월하다. 납부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來光

김기문(로만손 대표이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일 광주를 방문한다. 김 회장은 이날 광주은행 본점에서 폐업이나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광주은행과 체결한다.



신세계에 비엔날레 홍보관

1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광장에 마련된 제8회 광주비엔날레 홍보관에서 이장환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맨 왼쪽)와 마시밀리아노 지오니(2세번째) 예술감독이 작품을 보고 있다. 이날 문을 연 홍보관은 '미리보는 2010 광주 비엔날레'라는 주제로 오는 9월7일까지 운영된다.

경제위기 웬말...사치품 수입 급증

외제차 7월 2억1400만달러...금·위스키도 ↑

올해 들어 경기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승용차, 금, 골프용품, 위스키 등 사치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수입된 외제자동차는 2억1400만달러로, 작년 7월(8800만달러)에 비해 무려 143.9%나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의 자동차 총 수입액은 15억24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9억4000만달러)보다 6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수입액도 9억 1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5억 4400만달러)보다 67.4% 많았다. 골프용품은 지난 7월 수입액이 3천만달러로 작년 7월(2800만달러)에 비해 5.5%가 늘어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수입액은 2억9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억 6천600만달러보다 26.3%나 늘었다. 위스키·와인 등 주류의 수입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주류 수입액은 5100만달러로 작년 7월(3800만달러)보다 34.0% 늘었다.

중소벤처 '글리프스' 2억짜리 퍼터 중국에 수출



국내 중소 벤처회사가 세계 최고가에 해당하는 2억원짜리 퍼터를 수출했다. 18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골프채 제조업체인 글리프스는 최근 중국에 2억원짜리 퍼터인 'GS98B'<사진> 모델을 수출했다. 2억원짜리 퍼터의 머리 부분은 백금과 다이아몬드 290여개로 장식됐다. 이 퍼터 하나가 올 상반기 전체 골프채 수출액(113만 달러)의 16%가량을 차지한다고 글리프스는 설명했다.

펀드판매 암행평가
光銀 2회 연속 우수

광주은행은 18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10년 상반기 펀드 판매회사 암행평가(미스터리쇼핑)에서 2회 연속 우수 평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다음번 암행 평가를 면제받게 됐다. 금감원의 이번 암행평가는 은행 16개사, 증권회사 19개사 등 모두 35개사, 600여 점포를 대상으로 투자자 정보와 투자성향 파악, 펀드상품 설명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2금융권 대출금리 공개로 인하 경쟁

공시 시스템 구축 이달말부터 제공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이 업권별로 구축돼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105개 회원사의 예금금리 외에 대출금리도 인터넷에서 일목요연

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금리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볼 수 있고,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가 제공된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의 대명사로 통하는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도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dfa.or.kr)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

업체 100여곳 가운데 소매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30여곳이다. 캐피탈사들도 지난날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 crefia.or.kr)에 '자동차 할부 맞춤형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설한 데 이어 신용대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반기에 개설하기로 했다. 금감당국은 제2금융권이 속속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와중에 대출금리까지 공개되면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까지 볼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국제세청, 호우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광주지방국제세청(청장 임성균)은 18일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최장 9개월 동안 국제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기연장 대상 국세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으로, 납부예정자는 물론 납부고지서가 발송됐어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납부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이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또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법인세에서 그 상실 비율에 맞춰 공제해택도 제공된다. 세정지원을 위한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국제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도 된다.

Advertisement for 'Cheolmanpyo' (철만표 방수제) waterproofing product. It features a large blue and yellow banner with text in Korean, including 'SINCE 1988' and '대한민국대문방수제'. The ad highlights its effectiveness in preventing water damage and includes images of construction sites and a woman.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IA) restaurant. The ad features a colorful banner with text in Korean, including '고급객 메뉴, 건강한 맛, 열거없는 서비스 (500석 침비)'. It lists various menu items and services, and includes a phone number '062)671-1199'.